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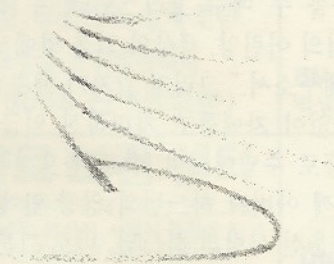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4주일 세계 성소주일
제27권 22호 (다해) 2007.4.29

[묵상]



문을 열고

산을 바라보며 살다가 들었네.

문득 산이 날 부르는 목소리

문을 열고 산으로 가니

능선마다 골짜기마다 온갖 물상(物象)들

내리시는 햇살 먹고 푸르게 살고 있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래서 연락처) : (213)458-0396

수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주일학교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백삼위 신앙학교 5월1일 제4단계 개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복사단 모임 (첫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유철희 바오로 (310)320-3697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버지니아 공대 희생자들을 위하여
	(생) 민영준 마르코,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버지니아 공대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하여
주 일 낮 미사	(연) 김창래 파스칼, 김형진, 석선건 안젤로, 테니스웨이 양갑순 마리아, 정운 요셉, 김인영 베드로,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버지니아 공대 희생자들을 위하여
	(생) 버지니아 공대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하여 이유진 대건안드레아, 이종민 요셉, 김형미 테레사 김선재 바오로 & 옥희 바울라, 이석제 베드로 가정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김셋별 요셉파나 & 한기선 요셉 김우용 시몬과 문선 미리암,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13,14,43-52

화답송 ◎우리는 당신의 것 당신 백성이여라
기르시는 양떼이여라.
<전례성가 72 부활 제4주일 C해>
◎온누리 반기어 야훼께 소리쳐라
기쁨으로 야훼님 섬겨 드려라.
춤추며 당신앞에 나아가라.◎
◎고마우심 노래하며 당신 문으로
찬미하며 들어가라 그 뜰안으로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야훼는 하느님 너희는 알라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당신의 것
당신 백성이여라 기르시는 그 양떼 이여라.◎
◎야훼님 좋으시다 영원하신 그 사랑
당신의 진실하심 세세에 미치리라.◎

제 2독서 요한 묵시록 7,9,14-17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요한 10,27-30

영성체송 주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고,
주님의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신
착하신 목자께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69	243
봉헌	410	165, 266
성체	From This Moment On	282, 290
파견	357	162

※ 거룩한 미사에 대한 카탈리나의 증언(3) ※

그날, 대축일의 대영광송은 얼마나 달랐는지! 갑자기 나는 저 멀리 빛으로 가득한 하느님 옥좌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현존을 보았다. 모든 것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한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지극한 감사를 끊임없이 드리고 또 드렸다.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나는 끝없이 착하고 자애로우신 성부의 얼굴을 그렸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계셨다. 한없이 자애롭고 자비하신 얼굴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지극히 아름다운 신 사랑의 하느님, 바로 그분이 그 순간 내 온 존재를 전율케 하셨다.

마음속 깊이 내가 청했다. ‘주님, 모든 악한 영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제 마음은 오로지 당신께 속합니다. 오 주님, 제게 당신의 평화를 주시어, 제 영혼을 구원하는 크나큰 양식을 이 성체에서 얻고, 그로써 제 삶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하느님의 성령이시여, 저를 바꾸소서, 제 안에서 작용하소서, 저를 이끌고 인도하소서! 오 하느님, 당신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그러자 말씀의 전례가 시작되었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당신을 따라 말하게 하셨다. “주님, 저는 오늘 당신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제 마음 바닥까지 깨끗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 말씀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꽃 피울 수 있게 준비시켜 주소서. 제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시어 당신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게 하소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셔다. “나는 네가 독서 말씀과 사제의 모든 강론을 주의 깊게 듣기를 바란다. ‘하느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않고는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여라(이사 55, 10-11; 코린 9, 10 참조). 네가 주의 깊게 들으면 네가 듣는 모든 것에서 무엇인가가 내 안에 머무게 될 것이다. 너는 네 안에 인상을 남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씹고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두문장일 수도 있고 복음 말씀 전부일 수도 있고 단 한마디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나 네 안에 남아 있는 그 말씀을 종일토록 음미하고 맛 들여야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은 네 안에서 ‘살아’ 될 것이다.’ 이것이 삶을 바꾸는 방법이다.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바꾸도록 그냥 내버려두기만 하면 된다.

이제 주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오늘 네 맘속에 계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기꺼이 들으려고 네가 여기 있다고.”

◆카탈리나 리바스 / 다음 주에 계속

양 사랑, 목자 사랑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되지도 않는 말들 때문에 혼자 웃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사랑'이란 말의 사용입니다. 예를 들면, 리포터가 오리농장을 다녀왔다며 주인의 오리 사랑이 각별하다고 있는 대로 칭찬을 합니다. 공을 들여 오리를 키우는 모습들과 어떤 때는 시중의 값이 너무 떨어져서 할 수 없이 폐사를 시킨다고 울상인 주인의 얼굴이 화면에 비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곤 의례히 오리고기 요리를 먹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맛이 있다고 입맛을 다셔 가며 주인과 함께 먹고는 청취자들에게도 오리를 많이 사랑해 달라고 합니다. 오리 대신에 돼지도 양식 송어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물을 어떻게 잡아먹고 팔아서 돈을 버는 사업을 할 수 있단니까? 또 어떻게 폐사를 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걸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때에는 양 목축이 생계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정성들여 키우고 그 젖을 짜먹으며 고기를 먹고 털과 가죽으로 입을 것을 장만했습니다. 때로는 양 떼를 습격하는 이리들에 맞서 위험한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양 사랑이 각별하다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 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길러서 젖을 짜드시고 잡아서 양식으로 삼으시고 팔아서 돈을 버시려고 하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이를 보증하시려고 하느님 아버지를 내세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요한 10,29).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꼭 필요했단가 하는 이유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고, 악과 악마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맞서 싸우시다가 당신의 생명까지 잃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죽을 차례입니다. 목자를 죽인 이리 떼는 마음놓고 양 떼를 잡아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려면 목자가 다시 살아나 다시는 죽지 않게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멸

의 목자가 지키시는 양 떼에 속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착한 목자의 양 사랑이 이렇듯 크시니 우리의 목자 사랑도 그만큼 커야 하지 않을까요? 목소리만 듣고도 수많은 우리들 하나하나를 구분하시고 살피 주시는 사랑 많으신 목자이시니 우리도 그분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하겠지요. 그야말로 양 사랑과 목자 사랑이 서로 만나야 합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요한 10,27).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듯이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 주소서!

● 백남용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

<6면에서 계속>

아버지의 부르심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루카 1,38) 하고 곧바로 대답하신 동정 성모님의 간구로, 주교와 친교를 이루어 복음을 충실히 선포하고 성사를 거행하며 하느님 백성을 돌보고 온 인류의 복음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제들, 곧 하느님 기쁨을 전하는 종들이 그리스도교 백성에게 부족하지 않기를 빕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시류에 맞서 가난과 정결과 순명의 복음 권고를 실천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해방의 구원 메시지를 예언자적으로 증언하는 봉헌 생활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특별한 성소로 부르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루카 8,21) 하신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신 성모님께서서 여러분에게 하느님 아드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법을 가르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히 성모님께 맡겨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 왔습니다." (히브 10,7 참조) 하고 삶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기도 중에 특별히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 바티칸에서 / 2007년 2월 10일 / 교황 베네딕토 16세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례 테레사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김정은 세실리아	박혜경 레나타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 남 1, 3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이호미 엘리사벳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전배형 베드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황지영 안젤라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 V. 2 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되도록 일찍 옵시다.
- ◆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 헌금 (매월 첫째 주일)
- ◆ 가정의 평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는 계속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합니다.
- ☞ 지난 주간 합계: 2,707단 ☞ 총 합계: 120,166단

- ◆ 백삼위 신앙학교 제4단계 개강
 - 5월1일(화)~7월2일(화), 오후 7시30분, 성전
- ◆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 오늘 주일, 오후 1시, 강당 ● 자격: 7학년 이상 모든 학생
- ◆ 전례부 부활 파티 및 평가회
 - 오늘 주일, 오후 5시, 강당
 - 해설자, 독서자, 전례봉사자, 복사단, 청년회 전례봉사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 본당 울뜨레아 모임
 - 오늘 주일 오후 1시, 유아실 (점심제공 합니다.)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D.) 참가자/부모 모임
 - 오늘 주일 오후 12시, Room 3
 - 참가비 잔액 납부 마감: 4월29일(주일)
- ◆ St. Margaret Mary 본당 Art Exhibition
 - 오늘 주일 오전 9시~오후 2시30분
 - St. Margaret Mary Church, Hegathy Hall
 - 저희 교우 김선제 바오로, 김윤진 카타리나께서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많은 교우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 ◆ 요셉 만나회 부활맞이 온천 관광
 - 4월30일(월), 오전 8시 성당출발 ● Elsinore 온천장
 - 회비: 회원 \$15, 비회원 \$25
 - 문의: 회장 이영희 카타리나 (310)944-2737

5월



- ◆ 병자영성체: 3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 성시간: 3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토렌스 동구역
- ◆ 성모신심미사: 5일(토) 오전 8시30분
- ◆ 성모의 밤: 5일(토) 오후 8시
 - 각 단체 및 개인 꽃 봉헌과 초 봉헌 있습니다.
 - 문의: 수녀님
 - 이날 토요 특전미사는 오후 7시에 있습니다.
 - 준비물: 묵주,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십시오.

- ◆ 제58차 M.E. 첫주말: 5월4일(금)~6일(주일)
 - 참가부부: 성낙호 요셉 & 은혜 실비아
 - 이석호 라파엘 & 중미 카타리나
 - 이경천 & 김기숙 엘리사벳
 - 첫 주말을 참가하시는 세 부부들을 위하여 M.E 가족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 ◆ 주일학교 견진반 '홈리스분들께 사랑의 샌드위치 나누기'
 - 샌드위치 만들기: 5월5일(토), 오후 2시 강당
 - 샌드위치 분배: 5월6일(주일) 9시30분미사후, Down town
 - 주관: 주일학교 견진반/ 대견회
 - 사랑의 샌드위치 만들기에 많은 신자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 ◆ 고등부 신앙대회 참가 비용 기금마련 본당신부님배 골프대회
 - 5월12일(토), Chester Washington
 - Tee Time: Senior/Lady 오전10시, Men 오전 11시
- ◆ 자모회 모임
 - 5월13일(주일), 오후 1시, 성당
 - 특강: 인터넷과 청소년 문화
 - 강사: 김화경 스탠다
- ◆ 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4월29일: 토렌스 동 1반 (카레 \$3)
 - 5월 6일: 소공동체 (김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본엽 권오상 김미경 김수명 김연숙 김영미	성전헌금	구본엽 권오상 김미경 김연숙 김영미 김우용
	김우용 김원호 김 은 김정웅 김찬구 민경덕		김원호 김찬구 민경덕 민기남 박수익 박토니
	민병숙 박기돈 박수익 박토니 배태임 변세연		배태임 변세연 안재만 엄세종 이경태 이명선
	안재만 엄세종 오명섭 유근태 윤희동 이경태		이민상 이재용 이재정 이현주 임현기 정상봉
	이명선 이민상 이석진 이재용 이재정 이현주		정정현 채양석 최길주 최미열 하정화 홍석철
	임현기 정상봉 정인식 정정현 주대중 채양석		황지영 김아가비도 이크리스
	최길주 최미열 하정화 홍석철 황지영 익명		
	김아가비도 이크리스		
	합계: \$ 4,590		합계: \$2,760
미사헌금	\$ 2,821.06	감사헌금	채양석

◆ The Rosary Bowl- 다민족 묵주기도 대회

The Family that Prays Together, Stays Together: 함께 기도하는 가정에 화목
A World at Prayer is a World at Peace: 기도하는 곳에 평화

- 5월19일(토) 오후5시~9시
오후 6시: 찬양, 묵주기도 체험나눔
7시30분: 입장식, 성체 거양 행렬, 묵주기도
마호니 추기경 강론, 성체강복
- Rose Bowl, Rose Bowl Dr., Pasadena, CA 91103
- 목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기도생활 강화→
가정화목과 공동체 일치 → 세계평화 촉진

◆ Help Stop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자살조력안 AB374법안이 주 법률위원회에서 정당
다수 표결로(민주7, 공화3) 통과되었고, 이제 가주 의회 전체
표결에 부쳐지게 되었습니다. 지구 의원과 주지사에게 우리
들의 우려를 알려져 이법이 통과 되지 못하도록 노력합시다.

- AB374법안이 통과될 때 문제점
- 1. 재산상속 유지, 의료 과오(過誤)를 은폐하거나, 또는
HMO 혜택을 받기위해서 의사조력자살이 독려될 수 있고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면 그의 오용을 막을 방법이 없음.
- 2. Oregon 주 보건당국은 AB374와 유사한 "Death with
Dignity Act"법이 통과된 후 의사 자살조력이 실제로 법
의 태두리를 벗어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 3. 오클랜드주에서 지난 9년동안 의사 조력자살이 실제로
우울증의 치료책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 4. 네델란드에서는 의사 조력자살법을 이용하여 선별된
환자들에게 그들의 동의 없이 약극물을 주사하기에 이르
러 노약자들이 의사에 의해 죽기가 두려워 병원 입원을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1992, 1995, 1999, 2005, 2006년
에 이법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가주 주교회의, 가주 의료협회 외 각 단체와 함께
사랑의 실천으로 이법을 막기위해 지역 주의원 Mr. Ted
Lieu와 주지사 Arnold Schwarzenegger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합시다.
- 개인편지와 서명용지는 사무실과 현관앞에 비치됩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 Torrance 보바로카 ❖

- Part Time 일하실 분, 원하는 시간에 일 하실 수 있음
- 연락처: (310)817-1592

이번 주 단체 모임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반장 모임 오후 1시, 강당

소공동체 부장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41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3	정정숙 레아 791-5696	정정숙 레아 791-5696 5/24(목), 오후7시30분
	4	권본경 율리아 834-2831	형제반 1째 수 오후7시, 성당 자매반 3째 수 오후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메아 200-0512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 성당
	2	이명순크리스타나 374-1572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 성당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5/11(금)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렌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진희 한나 720-7898
	3	장주란 마리아 486-1982	장주란 마리아 486-1982 5/11(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Club.cyworld.com/103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365-2183	1	권병연 리디아 (소공동체 차장) 938-3255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 성당
	2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 성당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 차장)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 성당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체육대회 후 친교자리 5/20(주일), 오후 5시, 친교장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370-6589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 5/11(금) 오후7시30분
	2	김명재 아가다 541-3687	김명재 아가다 541-3697
	3	진애경 율리아나 541-5370	진애경 율리아나 541-5370
	4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제44차 성소 주일 담화

친교인 교회에 봉사하는 성소(聖召) - 2007년 4월 29일, 부활 제4주일 -

해마다 맞이하는 성소주일은 교회생활과 사명에 성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훌륭한 성소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드리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올해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시기적으로 알맞은 '친교인 교회에 봉사하는 성소'라는 주제에 하느님 백성 전체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본래, 예수님을 만난 갈릴래아의 몇몇 어부들이 그분의 눈길과 목소리에 사로잡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르 1,17; 마태 4,19) 하신 간절한 초대를 받아들이면서 그 토대가 세워졌습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언제나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느님께서는 먼저 "큰 민족" (창세 12,1) 을 이루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키도록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탈출 3,10) 그 이후에도 하느님께서는 다른 이들, 특히 예언자들을 지명하셔서 당신 백성과 맺은 계약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당신 사명을 수행할 사도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셨습니다. (마르 3,14)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당신께서 세상 끝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 죽음과 부활을 영원히 기억할 임무를 맡기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이런 애절한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었고 앞으로 알려 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17,26)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하느님과 이루는 내밀하고 충실한 친교 위에 세워집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은 교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 (4항)이며, 그 안에 하느님의 신비 자체가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이 교회 안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의 활동 덕분에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마음"을 이룹니다. 목자들의 인도 아래 유기적으로 형성된 이 백성은 하느님과 형제들과 이루는 친교의 신비를 실천합니다. 특히 성찬례를 위하여 함께 모였을 때 그러합니다. 성찬례는 예수님께서 당신 수난 전날 밤에 기도하신 그 교회의 일치에 대한 원천이 됩니다.

"아버지, ...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요한 17,21) 이러한 긴밀한 친교는 교회에 봉사할 헌신적인 성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믿는 이의 마음은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오롯이 헌신하도록 이끌립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친교인 교회의 신비에 깨어 있는 사목 활동이 중요합니다. 화목하고 서로 믿으며 양심적인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부르심을 더욱 잘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돌보려면 하느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소년 사무엘이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시키는 일을 알아듣고 곧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도운 엘리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1사무 3,9) 따라서 무엇보다도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내밀한 친교를 이루는 분위기 안에서만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게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명령에 따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수확할 밭의 주님'께 다 같이 꾸준하게 기도함으로써 성소의 은총을 간청하여야 합니다. (종략)

지난 세기 축적된 사목 경험을 바탕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미래 사제들에게 참된 교회의 친교를 가르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제는 "친교인 교회의 중"입니다. 그것은 사제는 주교와 일치를 이루고, 사제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성소자들과 다양한 은사를 받은 이들 및 여러 봉사자들과 화합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굳건히 다져나가기 때문입니다" (16항). 그리스도교 백성 안에서 모든 직무와 은사는 온전한 친교를 지향할 수밖에 없으며, 교회의 다른 모든 성소와 직무와 조화를 이루어 이러한 친교를 증진하는 것은 주교와 사제들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봉헌생활 또한 그 본질상 이러한 친교에 봉사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봉헌생활은 삼위일체를 증언하는 삶의 형태로서 형제애의 의무를 교회 안에서 생생하게 간직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봉헌생활은, 공동생활의 형태를 통하여, 형제적 사랑을 끊임없이 촉진함으로써 삼위일체적 친교의 나뭇잎이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유형의 연대성을 창조할 수 있음을 증언하여 왔습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중심에는 교회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례가 있습니다. 복음에 봉사하는 모든 사람은 성찬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키워가고 이에 따라 친교인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성찬 사랑'이 전체 교회의 성소 활동을 증진하고 그 토대가 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사들, 특히 성체성사를 통하여 주님의 현존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든 사제성소와 다른 직무들에 대한 성소가 하느님 백성 안에 꽃피게 됩니다. 교회의 전례에서, 교회의 기도에서, 살아 있는 신자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현존을 인식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현존을 깨닫는 법을 배웁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계속하여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한" (사도 1,14) 첫 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성모님께서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서 삼위일체의 표상이 되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탁월한 표지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3면에 계속 >